

사회

광주 高3 상위권 서울 기숙학원행

수능 100일 앞두고 학교마다 상경 허용 남구선 족집게 고액 비밀과의 성행 면접·논술반 개설 붐물... 반수생 늘어

유독 많은 반수가 예고된 올 수능에서 성적의 분수령이 될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이 성적 끌어올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 '학원특구'인 남구에서는 고액 비밀과의 성행하고 있고, 상위 5% 학생은 수도권 유명 학원을 찾고 있다. 예능계열 학생들은 서울 유명 대학 강사가 은밀히 진행하는 특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른 학력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수도권 기숙학원 '원정' 늘어=방학을 맞아 내신과 수능 등급을 관리하기 위해 집중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숙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상위권 학생은 암암리에 한 달에

200~400만원의 고액을 내고 서울 강남지역 학원에서 전 과목 정리수업을 받고 있다. 예능계 지원 학생들은 원룸 생활을 하며 관련 대학 강사들이 강의하는 수도권 학원에서 월 300~400만원을 호가하는 초고액 레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선택제인 학교 방학보충수업을 빠지고 고등학생 딸을 경기도로 원정 교습을 보냈다는 학부모 김모(여·45)씨는 "통학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24시간 체계적인 관리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하자마자 딸을 보냈다"고 말했다.

◇족집게 고액과의 성행=1점이라도 더 맞으려는 욕심에 불법 과외를 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학원 강사들

에 따르면 광주지역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에 속칭 '과외방'을 차려놓고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불법 고액 교습이 성행하고 있다.

남구 봉선동의 한 학원강사는 "방학 직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불법 고액 과외는 이미 학원가에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교육당국이 불법 사교육 단속을 하고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 학생들을 데려가 따로 교습을 하는 등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가 면접·논술반 개설 붐물=학생부 성적에 비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 학원들이 개설한 수시 면접반·논술반에도 학생들로 북적인다. 201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지난해에 비해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형 방법도 다양한 학생부 성적·논술·면접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도 높다.

광주 동구의 한 입시학원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의 유명 학원강사와 연계해 수시 논술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종합반 수업에 포함돼 있지만, 논술이나 면접반

을 따로 떼어내 운영해달라는 문의도 있다. 또 다른 입시학원은 논술반과 구술면접반을 별도 모집한 결과 정원을 훌쩍 넘겼다.

◇'물수능' 예고 반수생 늘어=수능이 예년보다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름방학을 맞아 '반수생'(수능을 준비 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학원가에 따르면 대부분 입시학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2학기 재수생 종합반 모집을 시작, 이달 초 개강했다.

입시학원 가운데 여름방학을 맞아 새로 등록한 반수생들이 무려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입시학원의 한 관계자는 "6월 모의평가가 쉽게 나오자 4개월 정도만 바깥 공부하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보고 많은 대학생들이 반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북구청 방역팀이 25일 무더위 불청객인 모기·파리를 제거하기 위해 북동의 한 폐유처리 주변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나원침 (8365) 김종두



교사 정당 가입 합법화 광주·전남 공동행동 출범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하는 '정치활동 기본권 찾기 광주·전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5일 광주지검 앞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한 뒤, "1만원씩 소액기부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기소는 명백히 잘못된 정치기소"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교사·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활동을 하거나 불법 후원금은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광주·전남 교사와 공무원 1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야당을 비롯한 102개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성적 오류 66개교에 2342명

이주호장관, 나이스 점검 지시

광주시교육청은 25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성적 오류가 발생한 중학교 2곳, 고교 28곳에 통보해 성적을 바로 잡도록 했다. 전남교육청도 중학교 1곳, 35개 고교에 오류 사실을 알렸다. 광주·전남 성적 정정대상 학교는 모두 66곳, 2342명(중학생 20명 포함)명이다.

광주에서는 중학교 19명, 고교 1313명 등 모두 1332명의 성적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고교 1학년 690명, 2학년 408명, 3학년 215명이다. 전남 중·고교의 성적 오류는 1010명으로, 고3은 249명이 포함돼 있다.

학생들의 석차·등급 변동 결과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학교의 성적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다. 성적 정정 대상학교는 시(www.gen.go.kr)·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나이스 오류를 점검하고 고3 학생의 경우 내신 석차등급이 바뀔 659명에게는 26일까지 개별 통보해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이스를 운영·관리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천세영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입·출항 신고서 위조 어선 감척비 5억 꿀꺽

여수해경, 낚시가게 업주 등 일당 13명 검거

방치된 어선을 입·출항 신고서 등을 위조해 조업중인 어선으로 탈바꿈시킨 뒤, 감척찰차를 받아 감척 지원금을 타낸 낚시 가게 업주와 일용직 근로자 등 1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어로 실적을 입증하기 위해 수산물 판매증명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여수해경경찰은 25일 낚시 판매업주인 김모(5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용직 근로자 강모(5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4월 초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자신 소유의 9.77t급 연안복합용 낚시 어선으로 90일 이상 조업한 것처럼 허위 입·출항 신고서를 여수시에 제출해 어선 1척에 대한 지원금 1억24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감척한 어선은 감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업 어선이 아니라 수년

째 방치해놓은 사실상 용도폐기된 어선이었다.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60일 이상 자신의 어선을 이용해 조업한 실적(출·입항 신고서)이나 수협 위탁판매실적, 연세유 공급실적 등 단 한 가지만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어선 감척 지원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일용직 근로자 강모(52)씨 등 나머지 12명과 12척의 배를 운용하지 않았으면서 조업한 것처럼 입출항 신고서 또는 위관 판매실적 등을 허위로 꾸며 1인당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의 어선 감척 지원금을 탔다.

이들은 해경에서 위촉된 마을 어촌계장 등이 입출항 신고서 작업업무를 대행하는 사실을 알고 친분을 이용, 허위 입출항 신고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회삿돈 8억원 빼들려

광주경찰, 40대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은 25일 수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광주 모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이사 J(43)씨를 횡령 혐의로 불감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회사 자금을 직권 7명의 계좌에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 이를 다시 현금으로 찾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돈을 빼들린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2000만원 이하 또는 900만원 이하의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오다, 현금거래가 너무 많은 것을 의심한 금융정보분석원 측의 자료 분석을 통해 범행이 발각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 오리농장 AI 항체

오리 4400마리 살처분

나주의 한 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체가 발견돼 오리 4400마리가 살처분됐다.

전남도는 "최근 나주시 동강면 한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체가 검출돼 이 농가에서 기르던 오리 44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에서 올해 들어 AI 항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항체는 항원이 체내에 들어가면 면역체계가 싸우다 남는 결과물로, 그 자체로 바이러스를 전파하지는 않지만 H5, H7형 항체는 병원성으로 전이될 수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첨단지구 아파트 단지 2시간 정전 주민 불편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여 동안 정전사태가 발생해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5일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 광주 북구 첨단지구 일대 아파트에서 정전사고가 발생, 오후 1시18분께 복구를 마쳤다.

이 사고로 일대 아파트 1700가구와 방학 중인 고등학교, 상가 등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광주 지방 합동청사에도 순간적으로 정전이 일어나 컴퓨터와 방방시설 등이 꺼졌다가 잠시 뒤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한 건설업체가 우수관 환기구 설치작업을 위해 땅을 파다가 땅속 케이블을 건드려 발생했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막 소독 화재 오인 신고 해마다 반복 피곤한 119

목포소방서 소방대원들은 최근 아파트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놀란 가슴을 슬어내려야 했다.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자마자 소방대원 20명과 소방차량 9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아파트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 피해를 부르기 때문에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출동보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재가 아니라 연막소독을 불로 착각한 오인 신고였다.

화재가 아니라 다량이었지만 최근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하루 한 건 꼴로 이 같은 화재 오인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관들이 소방력을 낭비하고 있다.

여름철 들어 비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방역을 위해 실시하는 연막소독을 화재로 착각해 신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올 여름 들어 연막소독으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한 사례는 모두 29건이다.

이 같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은 연막소독 전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막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겨 소방차량 출동을 야기하면 소방기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오인신고 출동으로 자칫 대형 화재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신고한 뒤, 연막소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시장 지갑 텅 '못된' 치킨집 알바생

○"회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치킨집 사장의 지갑을 텅 '못된' 전·현직 치킨집 아르바이트생들이 출몰이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0)씨와 박씨의 여자친구(19)·김모(19)군 등 3명은 지난 6월 13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노래방에서 김모(42)씨의 지갑에서 현금 40만원을 몰래 빼고, 신용카드를 훔쳐 4200만원을 인출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치킨집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과거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신 김씨가 만취하지 차례로 지갑에 손을 댄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영·수 소망직 (전원)	명품 '강력민과'	7·9급 검찰직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18명, 4월, 6월, 9월, 12월 4회차 2011년: 0800-8200 24시간 상담	18명, 4월, 6월, 9월, 12월 4회차 2011년: 0800-8200 24시간 상담	18명, 4월, 6월, 9월, 12월 4회차 2011년: 0800-8200 24시간 상담	18명, 4월, 6월, 9월, 12월 4회차 2011년: 0800-8200 24시간 상담	18명, 4월, 6월, 9월, 12월 4회차 2011년: 0800-8200 24시간 상담	18명, 4월, 6월, 9월, 12월 4회차 2011년: 0800-8200 24시간 상담	18명, 4월, 6월, 9월, 12월 4회차 2011년: 0800-8200 24시간 상담	18명, 4월, 6월, 9월, 12월 4회차 2011년: 0800-8200 24시간 상담

호남유일의 합격전문반 개설

일반직 전환특채 졸환

7월 23일 첫진도 개강!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전문공무원 1천명 대폭증원

사회복지직 특별반 모집 8월 1일

개강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관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